



코스피	1998.13 (0.00)	코스닥	615.70 (0.00)
금리 (연이자율)	1.26 (-0.05)	환율 (원/달러)	1198.00 (+9.50) (2일)



[산업]
 車업계 夏鬪비상 속
 쌍용자동차
 10년 연속 무분규 매듭
 0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나선 정부

159개 품목 집중관리 화학분야 40개 최다

경제전쟁 전면전

日 의존도 높은 2차 전지 등
화학산업 추가 규제 가능성
탄소섬유도 日 의존 절대적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됐다. 위기감이 반도체를 넘어서 화학과 2차전지, 기계 등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11면>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직후 집중 관리할 159개 품목을 선정했다. 수출 규제가 가능한 1194개 중 엄선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화학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량이 많고 대체수입이 어려운 핵심 품목으로, 화학 산업에 추가 수출 규제 조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화학 산업에서도 2차 전지 부문이 특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우치와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등이다. 배터리 셀을 감싸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접착하는 등에 쓰인다.

이들 소재는 배터리 핵심 소재는 아니지만, 일본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전지는 국내 대표적인 신성장 분야 중 하나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이 주력해 육성하고 있다. 글로벌 점유율이 2분기 기준 19.1%로 일본(26.5%)을 빠르게 추격했지만, 소재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자칫 다시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부문도 관리 품목에서 상당수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해졌다. 이미 수출 규제가 시작됐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 규제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당장 불화수소(HF)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포토레지스트가 지난달 4일 1차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상태, 한달여간 일본 정부에서 수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웨이퍼와 마스크도 추가 규제가 유력시된다. 웨이퍼는 반도체를 새기는 원판으로, 일본산 비중이 50%를 넘는 다. 마스크도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반

대 일본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

90% 이상 품목수 총 48개, 평균 의존률 96.5%

분류 명칭	의존률(%)	품목 수
광물성 생산품	97.3	6개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98.4	14개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고무 및 관련 제품	96.2	7개
방직용 섬유 및 관련 제품	99.6	1개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및 관련 제품, 도자제품, 유리	97.5	2개
비 금속 및 관련 제품	92.1	10개
기계류, 전기기기, 녹음기, TV 영상·음향기기 및 부품	91.7	5개
차량, 항공기, 선박, 수송기기 등 관련품	97.7	2개
광학, 사진, 영화, 측정, 검사, 정밀, 의료 관련 기기, 시계, 악기 및 부품	94.2	1개

※ 2018년, 품목 수: HS코드 6단위 기준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연합뉴스

도체에 꼭 필요한 소재로, 일본산 비중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100%에 달한다.

공작기계도 수출 규제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로 관리 품목에 자리를 차지했다. 상당부분이 국산화됐고 독일 등 대안도 적지는 않지만, 일본산을 완전히 대체하는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공작기계 중 60%가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됐다.

탄소섬유도 일본산 비중이 절대적이다. 탄소섬유는 상당수가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차체 제작에 쓰이며, 특히 연비를 중요시하는 전기차에 필수 요소로 꼽힌다. 자동차 산업도 위기를 진단하는 이유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경제전쟁 후폭풍... 1달러 1200원 시대 오나

원·달러 환율 1195.0원까지 올라
 증가기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
 역외시장 환율 이미 1200원 돌파

1달러당 1200원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된 데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라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육박했다.

이미 역외시장에선 1200원을 넘어섰다. 한·일간 경제전쟁이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다음 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 '트리플 약제'에 원·달러 환율 급등
 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증가보다 9.5원 급등(원화가치 급락)한 1198.0원에 마감했다. 이는 증가 기준으로 2017년 1월 9일(1208.3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외시장 환율은 이미 1200원을 넘어섰다. 지난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뉴욕 역외차액결제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증가보다 9.5원 오른 달러당 1,198.0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 물은 전 거래일 대비 9.33원 오른 1203.85원에 최종 호가됐다.

이날 외환시장에는 '트리플 약제'가 덮치며 크게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보다 7.5원 오른 1196.0원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총 25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나머지 3250억달러 어치에 대해서도 25% 관세율 적용을 경고해 왔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 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 '1달러=1200원' 실현될까
 굵직한 대외 이슈가 겹치면서 시장에선 이번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으나 이를 '보험적 성격'으로 정의하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기 때문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국내 시장에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져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오히려 달러화 강세를 보였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머리 맞댄 당정청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네번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은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미쓰비시 등 日 車부품사, 10년간 납품 담합

공정위, 4개사에 92억 과징금
 미쓰비시·히타치는 檢에 고발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의 4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팔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먹기 한 사실이 적발돼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일본 기업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도 이 같은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이미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

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일렉트릭(이하 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 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 역시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라고 표현하며 납품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